

국회 기재위 '조특법' 의결... 광주은행 매각 본격화

(조세소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우리금융 계열 은행들의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 광주·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이 현행법상 '비적격분

29일 본회의 처리 앞뒀

JB금융 인수작업 가속

내달 2일 KJB금융 창립

합'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격분할'로 간주하자는 조항을 신설한 게 조특법 개정안의 요지다.

여야는 애초 조특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야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야당은 그동안 안 사장의 사퇴가 있어야 기재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최근 조특법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정부가 지난 IMF 위기 당시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속원사업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이날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조특법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을 남겨두게 됐다. 모든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광주은행은 오는 5월1일 인적분할을 거쳐 이튿날인 2일 KJB금융지주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어 8월 중순 광주은행 주식이 증시에 상장되면 광주은행 민영화작업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게 된다. 광주은행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기재위에서 조특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광주은행 민영화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선거를 비롯한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조특법 국회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학 구내 우체국 사라진다

광주·전남 7곳... 우편물 감소에 취급국 전환

우정사업본부가 '대학 구내 우체국 합리화'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7개 대학의 구내 우체국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101개 대학 내 우체국을 오는 7월부터 우편취급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사진)와 전남대 여수 캠퍼스·조선대·광주교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 등 7개 대학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대학 안에 민간 은행이 많고, 방학 기간에는 우체국 금융업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지역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편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은 7개, 서울지방우정청은 서강대 등 23개, 부산지방우정청은 부산대 등

17개, 충청지방우정청은 충남대 등 17개, 경인지방우정청은 인하대 등 14개, 경북지방우정청은 경북대 등 10개, 강원지방우정청은 전북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서울대 등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유예기간(1~2년)을 확보했으나, 점차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게 될 예정이다.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지만 금융업무는 창구에서 할 수 없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 담당 직원을 대신할 자동화 기기(ATM)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편물을 보내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체국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되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대학과 협의해 내달 1일 확정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철열기자 hot@kwangju.co.kr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해 드립니다

광주은행 대행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하)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문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창호 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코스피 2000선 돌파

22일 코스피지수가 하루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2000선을 돌파, 전날보다 5포인트(0.25%) 상승한 2004.22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전광판을 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달러당 1037.7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3월 광주·전남 신설법인 늘고 부도업체 줄어

13개 상장사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향상

신설법인이 꾸준히 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향상되는 등 광주·전남 지역에 경기회복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는 전월(447개)보다 3개 증가한 450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개보다 35개가 많은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의 증가를 수치로 나타낸 신설법인 배율은 150.0배로 2월의 118.8배보다 38.2배 상승했다. 전년 동월 보다 무려 46.2배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경기 활황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주지역의 배율은 전월대비 43.8배, 전년대비 46.5배나 늘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배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신설법인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13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2.16배로 전년 같은 기간의 0.08배보다 크게 향상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채무상환능력이 좋

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상장기업의 이자비용이 총 1802억원으로 2012년의 2419억원에 비해 25.5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13개사 가운데 부국철강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으며 화천기공과 동아에스텍이 각각 23.30배와 16.08배를 기록했다. 또 광주신세계(13.07배), 조선내화(7.80배)는 전국평균 4.84배를 웃돌며 순위를 이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3월 기준 부도업체 수도 광주 2개, 전남 1개 총 3개로 전월(4개) 보다 1개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DB산업은행 호남본부

중소 지원 활성화 세미나

KDB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1일 광주지점 대회의실에서 호남지역본부 소속 6개 종합금융지점의 기획팀장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투자금융을 활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호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금융을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제금융과 관련,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해지, 자산부채 mismatch 해소를 위해 선물환 및 이자율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이밖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 현지금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0.42 (+5.00)	▲ 코스닥지수 570.98 (+1.70)	▼ 금리 (국고채 3년) 2.88% (-0.01)	▼ 원·달러 환율 1037.70원 (-1.30)
----------------------------	---------------------------	--------------------------------	-------------------------------

광주 LED 업체, 수도권 LED 대기업과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축한다

광주지역 LED 업체와 수도권의 LED 대기업·중견기업이 상생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컨소시엄은 향후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협력모델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이재형 회장)는 오는 5월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LED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산업진흥회는 앞으로 LED분야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3개사)과 중견기업(7개사), 지역 중소기업(20개사) 중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 후 이들 기업을 묶어 3~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과 LG이노텍 등 국내외의 260여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LED조명제품 국제 표준화 컨소시엄 '자카'(Zhaga)가 최근 국제 표준으로 'LED조명 엔진'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 컨소시엄은 LED조명 엔진의 공동개발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국내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업체간 동반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기술 개발 성과와 협업전략의 핵심요소로 오는 10월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 기간에 발표해 LED 기업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LED기업이 글로벌 LED조명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창사 62주년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
2014년에는 더욱 좋아집니다!

- 가입비 폐지
- 이자율 인하
- 월 지급액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상담문의 **1577-7770**

www.fplove.or.kr